

2013 겨울

KazNKS

#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3.12.30



## 카자흐스탄 단신

아스타나 한국문화원 (p.4)

아트라우 한글학교 (p.5)

카자흐 경제대 (p.6)

알마티 한국교육원 (pp.7~8)

##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 개최

2013년 10월 10일(목)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567 돌을 맞은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는 알마티 내 한국어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글날과 한국학센터의 개원 1주년을 축하했다. (관련기사 p.2)

## 주요 소식

제 32 회  
한국어능력시험

(관련기사 p.8)

2013년 10월 20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제 32회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2013년  
한국어교사연수

(관련기사 p.7)

2013년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관련기사 p.2)

2013년 6월 19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www.kaznks.kz>  
E-mail: [cks@ablaikhan.kz](mailto:cks@ablaikhan.kz)

##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

2013년 10월 10일(목)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567돌을 맞은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는 알마티 내 한국어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글날과 한국학센터의 개원 1주년을 축하했다.

행사는 우시케노프(동양학부 학장)와 박 넬리(한국학센터 소장)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손치근 총영사(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한국의 발전 모델과 한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손치근 총영사의 특강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 모델로서 1970년대 한국의 경제 정책을 제시하여 청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글 전용으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밝히며, 카자흐스탄의 문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 현황”에서는 김세령, 최미옥, 안 립마, 장호중 교수가 차례대로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 국립대, 카자흐 경제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각 기관의 현황 발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학과 학생들의 “나의 한국문화 체험기”와 정치호 법인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의 “카자흐스탄의 한국 금융산업”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고, 행사 말미에는 신한은행 장학금 수여, 한글날 기념 백일장 “한국어와 나”의 입상자 시상, 제 30회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표창 등이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한국음식점 “가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어교육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향후 한국학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데에 합의하였다. 한편, 최 올가 카자흐스탄 한글학교협회장은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낮은 급여와 사기 저하로 인하여 초중고교의 한국어교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관을 대표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만 영사는 한국어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확인한 반면에, 전망과 한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2013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2013년 6월 19일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총장 무사예프 A.)에서 201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고, 비슈케크인문대와 한국외국어대 중앙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비슈케크한국교육원이 후원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제 3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창규 대사(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김희길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 마시라포프 T. 학장(비슈케크인문대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콘코바예프 K. 교수(키르기스스탄-터키 마나스대) 등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문화 협력과 이 지역 한국학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오후에 계속된 학술회의는 문화(한국학), 경제 1(경제일반), 경제 2(섬유산업) 세션에 중앙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한국학자,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여 각각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 방안”, “경제 교류 협력 방안”, “섬유산업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3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 교류 협력 방안”의 문화 세션은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된 가운데, 중앙아시아 한국학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 방안”의 논의가 끝난 뒤, 중앙아시아 한국학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동체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의 창립이 발의되었다.

발의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중앙아 한교협”의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결성되었고, 백태현 교수를 위원장, 장호중 교수를 부위원장, 손영훈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위원진을 구성하였다.



- |                           |                          |
|---------------------------|--------------------------|
| 1. 백태현(비슈케크 인문대)          | 2. 김용구(키르기스 국립대)         |
| 3. 김성수(비슈케크 인문대)          | 4. 허선행(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      |
| 5. 김 빅토리아(타슈켄트 동방학대학)     | 6. 장호중(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
| 7. 한 넬리(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 8. 신낙균(타지크 국립외국어대)       |
| 9. 최미희(타지크 국립외국어대)        | 10. 손영훈(한국외국어대)          |

“중앙아 한교협”은 한국학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여, 중앙아시아 한국학기관들의 정보 교환 및 교수 요원들의 상호 협력 하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아스타나 한국문화원

아스타나 한국문화원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학기에 각각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여름 학기는 여름방학 기간 중 약 2개월에 걸쳐 특별학기로 운영된다. 또한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법률 및 인문대 등 주요 대학 내 한국어 강좌(세종학당, 5개 반 약 50여명)도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스타나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강좌 외에도 케이팝, 케이팝커버댄스, 연극, 한글붓글씨, 한식 등의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 강좌를 수강하는 200여 명의 아스타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노래, 춤, 연극 등을 학기 말 수료식에서 발표하여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다.

아스타나의 겨울은 매우 춥지만, 문화원의 여러 강좌가 개강하면 학생들의 학습 열기로 이른 봄을 맞게 될 것이다.



## 아트라우 한글학교

카자흐스탄 서부의 아트라우에는 약 3,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고려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K-POP, 패션 등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트라우는 알마티와 2,000km 이상 떨어져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드물었으나, 2010년 이후 아트라우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늘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현지에서 통역과 인력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한국어교육이 시작되어 지금은 문법, 회화, 합창반 등 6개 반에서 7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담당교사 - 정 올라, 정현승) 고려인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은 취미, 유학, 취업 등 학습 목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진행된다.

최근 시작된 고려인 할머니 합창반은 우리 전통의 음악과 가락을 배우면서, 서로 모여 옛 시골에서 먹던 우리 음식을 나누며 멀리 떨어진 고국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고려인 청년들이 주축이 된 K-POP 동아리 및 한국어 반은 모국어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려인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어린이 한글반을 개설하여 한글학교를 운영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카자흐 경제대 카자흐스탄-한국센터

### 2013 년 결산

1. 2013 년 2 월 20 일 카자흐스탄-한국센터에서 “한국전통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제경영학과와 재정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 2013 년 3 월 1 일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바토프 경제대 총장, 손치근 총영사, 이견호 알마티 한국교육원장, 김정훈 코트라 차장, 최성식 삼성법인장, 정지호 신한은행법인장, 알마티 고려문화센터 신 발레리 등이 참석하였다.
3. 2013 년 4 월 4 일 카자흐 경제대의 카자흐스탄-한국센터와 카자흐스탄-일본센터에서 손치근 총영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4. 2013 년 4 월 9 일 경제대 학생들 90 명이 알마티 고려극장을 방문하여 “온달전”을 관람했다.
5. 2013 년 4 월 13 일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야유회를 가졌다.
6. 2013 년 5 월 21 일 국제청년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 – 성공의 길”을 주제로 20 명의 학생이 발표하였다.

**한국의 날**  
**День Кореи**

• 1 марта 2013 года в **15:00**  
 • Казах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Турара Рыскулова  
 (г. Алматы, ул. Джандосова 55, между пр. Алтынсарина и ул. Берегового)

• **В программе:**  
 - презентации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музыка», «Korean Wave»;  
 - танцы и песни, Fashion show;  
 -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одежда, блюда.

• **Организаторы:**  
 -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КазЭУ им. Т. Рыскулова  
 - факуль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TWO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Официальные спонсоры: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SAMSUNG**      **신한은행 SHINHAN BANK**



## 알마티 한국교육원

### 2013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연수

매년 여름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어교사 연수에 카자흐스탄 각 도시의 한국어교사들이 참석한다. 지방에서 한국어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고달픈 일이다. 한국인도 거의 없어서 교사들조차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된 이번 연수에 일반과정과 고급과정 각 30명씩의 교사들이 참석하였다.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한국에서 온 강사들의 한국어 교수법과 한국문화예술포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 크질오르다 한국전통문화축제

2013년 9월 12일 크질오르다에서 한국전통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한국음식경연대회에는 13개 조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요리 솜씨를 뽐냈다. 이 외에도 한복입기, 한국전통놀이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되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크질오르다 한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부심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고려인 동포들이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알마티 한국교육원

### 상반기 한국어강좌 수료식

2013년 5월 23일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상반기 한국어강좌 수료식”이 있었다.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축하하기 위해 연극반, 노인반, 카자흐 전통음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자리를 빛냈다.



### 하반기 한국어강좌 개강식

2013년 9월 6일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한국어강좌 2학기 개강식이 열렸다. 총 15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이어 8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30여 명의 교사들로 40여 개의 수업을 개설했다.

특히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매일반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이 확대 개설되었다. 이처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초급반에 집중되어 중급, 고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 32회 한국어능력시험

2013년 10월 20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제 32회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감독관 모두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입장했다.

이번 시험에는 카자흐스탄의 4개 도시(알마티, 악토베, 탈디쿠르간, 아스타나)에서 총 324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4월과 10월, 매년 2회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된다.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유학이나 취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